

계산가



[해제]

<계산가>는 <박금강금강산유산록> 다음에 수록된 작품이다. 그러나 <박금강금강산유산록>은 작품 말미에 간기(刊記)가 적혀 있어 그 제작 연대와 작자를 정확히 알 수 있었으나, 이 작품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어서 비록 두 작품이 같이 실렸다고는 하나 작자와 제작 시기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계산가>는 계절이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봄을 맞이하는 외로움과 부재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절절히 토로한 영정가사이다. 작중 화자는 여성적 어조로 사랑을 상실한 괴로운 심중을 노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애상적이고 절망적인 정조가 이 작품을 지배하고 있다. 봄은 겨우내 움츠려 있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며 온갖 물상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생동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산가>의 주인공은 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여전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꿈속에서 님을 그리워하다 빈방에서 홀로 깨고, 잠깐 부는 바람이나 꽃 그림자에 님인 줄 알고 뛰쳐 나가며, 길가는 행인에게서 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등 작품 행간에 님을 향한 그리움이 면면히 배어 있다. 그런데 <계산가>에서는 이러한 작중 화자의 애모의 마음이 일방적으로만 드러나 있을 뿐, 화자에 대한 님의 마음은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다. 작중 화자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듯, <계산가>의 마지막 구에서 술을 마시고 '장취불성' 함으로써 괴로운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편, 표면적으로 영정가사의 성격을 보이는 많은 작품들이 내면적으로는 연군(戀君)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이중적 작품이 많듯이, <계산가> 역시 단순히 남녀사이의 영정을 읊은 가사로 보기에 다소 무리인 부분들도 있어서 다양한 시각으로 작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가사작품이다.

[원문]

야소다

야양부 버든길노 낙산디 차자가 이백히

안두고 절처에 관음불리 거록하드

의상디 석간수는 의상조스 영격이라

큰법쌍 녹수관음 신통이 거록호오

강능부 차자기 놀기조흔 경포되는

익학과 마조잇싸 오호십이 명사중에 히당화 불거잇소 삼월춘풍 세우중의 빅구는 쌍쌍비라 삼척이 어디
 미요

죽설누 차자가이 오십천 너린물의

낙화노름 더욱조트 울진헨 망양정은

동희을 안을삼소 히옴업시 바리보이

삼신산이 어디잇노 적송자 소식망연하고

동남동여 삼천인은 일거의 불부회라

팽히싸 월송정은 풍경도 족커이와

습습동풍 명월야의 百구년 어디가고

공산이 적막흔디 장송만 지여잇노

망망창히 무진경을 유쥬영준 도라가이

심중보빅 이안인가 광서팔연 당저

십구연 壬午하의 절나도 영암옥천

유학의 박금강은 서호노라

계산가

계산의 봄이든이 만확의 꽃밭시시
동창을 늪피열고 벗업시 안자시이
슬푸다 저식들아 어딴설러 우단말가
니마음이 슬퍼홀출 아난드 모로난드
간밤의 씬을꾸이 임게신디 가것션이
솜을깨여 둘러보이 빈방안의 혼자로드
인간의 설른거시 이별박씨 쏘잇는가
간장의 철석인들 이러하고 어이허리
인명이 지중흔들 이러하고 사잔말그
화초난 일난하고 우는식은 곳곳시라
나는나부 횡기을 차자들고 유안의 연쇄하이
쇠고리노 벗슬찾니
무심한 미물덜도 춘흥을 다토거든
우리 무삼일노 지척의 글리난고
창전의 초록하이 원갓짐상 다울적의
빅마금편 소연덜아 놀기도 조홀씨고
심회도 적막하드
날갓튼이 뉘잇슬고 그달도 홀리업다
춘풍 양유원의 오드가 잡퍼든그
명월가부 번하지의 벗맛느 이젓난그
모천의 자난굴름 멀리수부 썰치느듯
호상의 도든달리 옥안을 도옵난듯
심정을 일른후의 동편외 기짓써널
임오난가 반게보이 절벽의 바람온다
바람소리 드러보이 위숫는 솔리로드
히다저 점은쌍의 오경가지 잠못들러
한숨짓소 안자씨이 이러타시 석인익을
춘춘이 썩여니이 송군을 의지하야
바리 보자흔들 노중의 가논사름
임곳튼이 하고만타 운산은 첩첩하야
망안을 기류왓소 수수논 의의하야
가난임을 뉘와시리 청누주막 이뉘노라
어딴미요 어침 응단하이 소식인들 뉘전홀쏘야
공산달 발글씩의 슬피우난 저두견아
니마음 서른삿설 네늬알르 전하여라

계산가

스창의 달밭그면 임도날을 싱각흔그
광풍이 건들부러 공유로 도라들째
우리임 오시느가 스창을 밧비연이
우후 전개의 반듯핀 미하로다
도로에 붓체서서 싱곡을 막조하야
시서울 손의쥐고 예술리로 흘여불째
수양을 처뭇보와 이니막음 근딛업싸
여보소 벗임네야 이니일 웃씨말소
명황은 천조로디 마송의서 우러잇소
초왕은 명무로디 옥장의 눈물지이
그박씨 늬은장부 몰홀빅 전이업드
부상은 초초하야 역여그치 지닝가고
일월은 무정하야 편시의 초록하이
청춘의 뭇질그면 빅발의 득시놀고
화손의 수돌닥고 금궁물 느저도
니마음 설른쫓시 근칠줄 전이업썩
아설라 술부어라 장취불성 흐오리라

노인가

천지조논 문물지 역여요
광음조논 빅딛지 과각이라
부싱이 악몽하이 우흔이 기하오
공도인조 유빅발은 귀인두상 부증요라
무정세월 더지업서 영웅호걸 득늬는드
부귀공명 후직하고 이니몸 썰딛업서
북창청풍 의석침을 도드베고 춘수잠싼
드러썩이 황조소리 씬을썩야 득시홍안
되조하고 박잔의 술을부어 반취반성
넉푼노리 연명시을 화답하이 히황천지
역의로드 강구의 경양노는 황포고복
한그하고 위천의 어조수는 창안빅발
확식하드 사호상산 도라본이 조지연넉
피잇고 빅낙천의 곱뵈로드 인근七十 고넉히라
수역춘딛 목슴길러 노즉그좌 잔치홀제
금관조옥 관조울연 치죄초 항빅홀제
만반진수 구든곡기 이업서 맛몰르고
중빈환화 넉푼소리 귀먹어 드를소야

일기소연 엇조오디 금일승회 늙푼잘리에
시불성이 면금곡주 벌호오리다
만좌개왈 낙드호이 더드더드 짓느글른
육두풍월 객이적고 들은들은 치느북은
늘근갓갓 고저로드
부로동연 작반호야 호손풍물 귀경갓서
동조야 신노와라 손익잡은 청여장은
구분허리 잠싼폐고 붓치달인 명지수건
시은눈 다시도고 만조천홍 살폐본이
동각관익 일은봄은 노중간화 히미호고
야은풍임 느진경은 소두낙엽 더욱섭드
삼신손 불노초을 갑슬주고 구할썬디
진황한무 안이사며 신농씨 맛본풀른
만병회춘 족커이와 빅발조초 금홀소야
압녹공상 빅두산은 멀리어이 히엿시며
주조천남 노인성은 벨도쏘흔 늑단몰갓
오름거갓 귀공조는 소면풍유 일시로드
당나라 이적선이 털리히여 티빅이여
한느룩 디장군은 나이절머 청인갓
고인세계 무삼일노 늘글노자 지엿느고
우순낙조 실러흔들 인근빅발 면홀손야
강호의 비을쓰의 시음잇고 노조던이
못노라 빅구덜라 년느어이 멀리히여
스름갓치 늘것노요 저빅구 디답호디
우리머리 본디히여 호요세우 갓치저저
십이연파 모욕호이 히고히고 다시히여
얼겍풍싱 늘글손야
빅연못술 인싱들른 부귀호면 욱심이요
빈천호면 근심이룩
빅며황 육쥬신세 찬연연 부노히야
만세무궁 호올리룩

[현대역]

계산가

계산에 봄이 드니 온 골짜기마다 꽃밭이네.
동창(東窓)을 높이 열고 벗 없이 앉아 있으니
슬프다 저 새들아 어디 서러워 운단 말인가
내 마음이 슬퍼하는 줄 아느냐 모르느냐.
지난 밤에 꿈을 꾸니 님 계신 데 갔었더니
꿈을 깨어 둘러보니 빈 방 안에 혼자로다.
인간의 서러운 것이 이별밖에 또 있는가.
마음이 아무리 굳세다고 한들 이러하면 어이하겠는가.
사람 생명이 지중(至重)한들 이러하면 살겠는가.
화초는 일란하고 곳곳에서 새는 우짖는다.
날아다니는 나비 향기를 찾아 들고 유안에 연쇄하니
꾀꼬리는 벗을 찾네.
무심(無心)한 미물(微物)들도 춘흥(春興)을 다투거든
우리는 무슨 일로 가까이 두고 그리는고.
창 앞 초록으로 뒤덮이고 온갖 짐승 다 울 적에
흰 옷 입고 금 채찍을 든 소인들아 놀기도 줄을시키고
심회(心懷)도 적막하다
나 같은 이 누가 있을고 그 달도 할 일 없다
춘풍양유원에 오다가 잡혔든가
명월가 빈번하고 의로운 벗 만나 니젓은가
모천의 자는 구름 멀리 꾸짖어 떨쳐버리려는 듯,
술잔 위로 떠 오르는 달이 아름다운 눈을 도우는 듯,
마음을 이룬 후에 동쪽에서 개가 짖거늘,
님 오는가 반가워 보니 절벽에서 바람이 분다.
바람소리 들어 보니 애끓는 소리로다.
해 다 진 저문 땅에 오경(새벽 3시~5시)까지 밤 못 들어
한숨짓고 앉았으니 이렇듯 상한 속을
시간 시간마다 께매 놓고 송군을 의지하여
바라 보자한들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님 같은 이 많고도 많다. 산같은 구름 첩첩이 쌓여
바라보는 것을 가리웠고 강물은 아쉬워 하며
가는 님을 미워하네 . 청루(靑樓) 주막의 주인이 묻노라
어디인고 여침응단하여 이 소식인들 누가 전할 것인가.
공산에 달 밝을 적에 슬피우는 저 두견새야
내 마음 서러운 뜻을 네 앞면 전해주거라.

사창(紗窓)의 달 밝으면 님도 나를 생각할까.
거센 바람이 잠깐 불어 빈 동산으로 돌아 들 때
우리 님 오시는가 사창을 바삐 여니
비온 뒤 섬돌 앞에 반듯하게 핀 매화로다.
도로에 붙어 서서 생각을 마저 하여
시서를 손에 쥐고 왼 손으로 흘려 볼 때
수양버들 채 못 보고 이 내 마음 갈 곳 없다.
여보시오 벗님네야 이 내일 웃지 마소.
명(明)나라 황제는 천자(天子)로되 말 위에서 운 적이 있고
초(楚) 왕은 이름난 장수로되 옥장(玉帳)에서 눈물 지으니
그 밖의 남은 장부 말할 바 전혀 없다.
부상은 초초하여 역려(逆旅)같이 지나가고
일월(日月)은 무정(無情)하여 잠시 초록빛이니
청춘에 못 즐기면 백발(白髮)에 다시 놓고
화산에 솟돌 닦고 금강물 낮아도
내 마음 서러운 뜻 그칠 일 전혀 없다.
아서라 술 부어라. 술 마시고 깨지 않으리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